

건축공학교육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차 희 성

아주대 건축학부 부교수
hscha@ajou.ac.kr



손 보 식

남서울대 건축공학과 조교수
bsson@nsu.ac.kr



이 재 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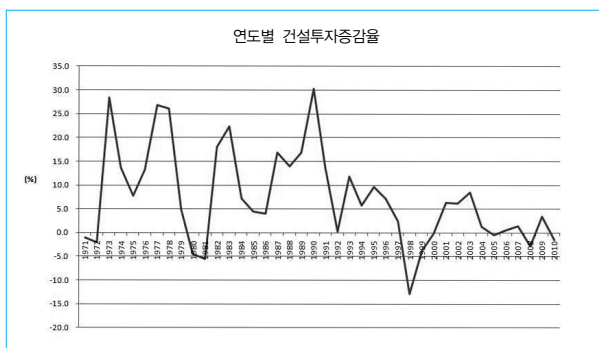
동국대 건축공학부 교수
js1998@dongguk.edu

1. 서론

건축산업은 인류와 함께 성장해온 매우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산업이다. 이러한 산업의 바탕이 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국내의 건축 교육은 전통적으로 공과 대학에 소속되어 건축(공)학 전공의 독자적인 분야로 자리매김해 왔다. 대한민국이 대내외적으로 급속히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제공해 준 건축교육이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왔다는 사실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건축교육은 근래에 다양한 교육인증제도(건축학 인증, 공학교육 인증)를 통해 국제적인

수준에 맞는 커리큘럼을 갖추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건축산업에 위기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규모가 세계13위를 자랑할 만큼 커지고, 국가적인 건설 인프라 수준도 높아짐에 따라, 건축분야에서의 새로운 수요의 창출은 한계에 도달했다는 진단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건축분야의 생산유발효과는 건설산업의 투자액에 비례하는 만큼, 건설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건축산업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다음의 그림 1은 지난 40년간 연도별 건설투자 증감률을 나타내주는 통계그래프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연도별로 큰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감소하는 경향을 따르고 있다. 한편, 전통적으로 건축산업은 타 산업과는 달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상대적으로 무더신 사업영역을 발굴해서 개척하기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어서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신규주택에 대한 수요도 크게 줄어드는 등 국내 건축산업의 미래가 현재보다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



▲그림 1. 연도별 건설투자증감률(출처: 한국은행)

세하다. 더구나 2000년대에 들어서 건축학 인증과 건축공학 인증 교육제도의 강화로 인해 건축교육 커리큘럼상 설계 교육과 기술 교육이 분리됨으로 인해 대학의 건축교육은 그야말로 설계 따로, 기술 따로라는 이분법적인 교육의 형태로 건축이라는 분야가 지니고 있는 융합과 통합의 개념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건축학 인증과 공학인증제도가 갖는 한계점이라고도 볼 수 있다. 본 고에서는 건축공학 교육 관점에서 공학교육인증제도(이하 ABEEK)가 갖는 한계를 짚어보고, 향후 건축공학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건축공학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건축이라는 산업 자체가 타 산업과는 달리 매우 다양한 학문 분야와의 접목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건축공학이라는 학문을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는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건축공학 교육의 본질은 건축산업에서 요구되는 건축기술인력을 양성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건축공학의 세부분야로는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시공/CM(건설관리) 등이 포함된다. 건축공학적 지식이라 함은 목적하는 건축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공학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제약조건을 감안하여 최상의 해결안을 찾는 과정에 대한 이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건축공학에서 다루는 공학적 문제에 대한 해결은 설계라는 결과물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현재 국내 건축공학 교육은 건축학 교육이 분리됨에 따라 공학적 관점에서 새로운 설계교육을 다루거나, 기존 건축학 교육과 공동으로 공학적인 설계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건축학 교육도 마찬가지로 공학적인 건축 기술에 대한 분야는 건축설계 교육에 맞게 재편성되어 별도의 강사나 건축공학 전공 교수에게 의뢰하는 형태를 지니고 있다. 즉, 유럽이나 미국의 건축교육 시스템에서와 같이 건축이라는 분야를 공학분야와 별개의 학문으로 존립시키는 방식을 따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국내 건축산업 생산 프로세스는 일본과 중국 등과 같이 시스템에 많이 의존해 왔고, 이들 동양적 시각에서는 건축분야를 기술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설계와 기술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규정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들어서 나타

나고 있는 설계중심 교육과 기술중심 교육의 이원화 체계는 국내 건축관련 법과 제도, 그리고 산업차원의 구조적인 개편과는 별개로 교육적인 효율성만을 따질 뿐 산업의 요구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산업적 기반이 없는 교육제도의 개편은 실효성에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유럽과 미국에서와 같이 건축분야가 설계와 기술을 이원화하여 다루고 있는 산업구조방식으로 전환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해봐야 산업적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편, 건축공학 교육은 건축학 분야에서 다루는 설계중심 교육과 분리되면서 공학중심의 교육내용이 보장되고 ABEEK 교육체계를 따르는 과정에서 공학적인 관점에서의 설계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건축공학 교육이 타 공학분야의 교육방식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의 논란의 여지가 있다. 논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 건축공학을 여타 공학분야와는 달리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전문분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다. 이는 건축공학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왜냐하면, 건축공학이란 분야가 독립적인 학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기보다는 건축물에 공학적 해결방안을 접목시키는 융복합 분야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공학이란 학문의 성격 상 독립적인 학문의 속성보다는 응용학문의 성격이 짙다. 즉, 건축공학은 기존의 전통적인 공학분야와 유기적인 연관성을 추구하는 분야이다. 건축구조는 구조공학이라는 전문분야를 건축분야에 접목시킨 학문이고, 건축설비는 기계공학, 전기공학 등의 전문분야를, 건축시공/CM(건설관리)은 재료공학, 건설공학, 경영학 등의 전문분야를 건축물에 접목시킨 학문인 셈이다. 즉, 건축공학 자체를 위한 전문분야에 대한 독자적인 학문체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건축공학은 전통적인 공학이라는 학문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건축물이라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응용공학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이슈는 공학교육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바, 건축공학 교육의 최종 소비자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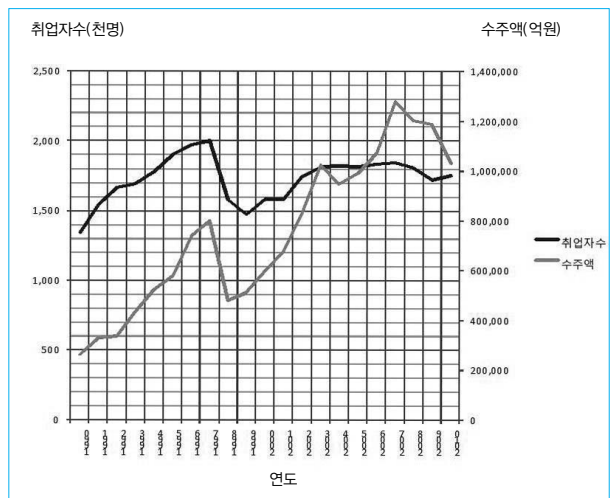
누구로 보아야 하느냐는 점이다. 건축공학 교육의 최종 소비자를 과연 설계/엔지니어링 업체나 건설회사로 한정지어 볼 수 있겠는가? 건축공학 교육의 대상은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를 포함한 모든 건축생산 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이해관계나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제각각이므로 단순히 공학이라는 학문의 잣대를 들이대기에 합당하지 못하다. 최근 건축공학 전공 졸업생들의 취업내용을 보더라도 건설회사, 설계/엔지니어링 회사 이외에도 건축공무원, 공기업, CM/감리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등 공학적 기반보다는 관리적이고 통합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분야로 진출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놓고 볼 때, ABEEK에서 강조하는 공학적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해법을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이듯이 교육 수요자의 개념을 산업체로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수요자의 요구에 맞도록 교육을 위한 체계 정립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건설회사만 보더라도 본사 설계부서의 경우, 주어진 프로젝트의 제약조건에 입각한 가장 최적의 설계대안을 고안해내는 것이 주 목적인 반면, 현장에서 공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경우, 주어진 공법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참여 협력업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최적의 자원을 할당하는 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건축 프로젝트 발주자의 입장에서는 공학적인 해결방안보다는 사회적, 환경적인 측면에서 계약적이고 제도적인 사항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한 능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공학 분야에서 다루는 접근방법과는 차별화된 교육방식과 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세 번째 이슈는 공학적인 인재상의 핵심적인 능력인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건축공학 분야에서 다루는 설계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의 문제이다. 건축공학이 다루는 설계교육과 건축학에서의 설계교육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일부 학교에서는 공학설계 내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아직도 방향 정립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아직도 많은 학교에서는 기존의 건축학 분야에서 다루는 설계에 공학적인 디테일을 추가하거나 경제성을 검토하는 등 분석적인 접근을 추가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과연 건축설계 분야와 차별되는 건축공학 분야만을 위한

공학적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건축공학 분야를 건축설계와 분리시켜서 공학적 해결방안에 한정시킨다면 건축 프로젝트가 갖는 속성 중에서 중요한 일부를 다루지 않음으로써 불완전한 건축교육이 되는 반면, 건축설계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시각적 해결방안에 치중되고 마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건축공학설계 교육의 내용은 단순한 공학적인 설계교육과는 차별화시켜 케이스(case) 중심의 건축 프로젝트에 기반한 다양한 문제해결능력을 다루는 형태로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졸업생 진로와 건축산업의 현황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건축공학 교육의 목적은 미래의 건축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의 그림 2는 지난 20년간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과 취업자수의 변동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공사수주액은 과거 20년 동안 약 4배 이상 급증한 반면, 취업자수는 거의 변동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더라도 건설산업의 경제적 성장속도에 비해 인력의 수요는 답보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통계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은 국내의 건설산업이 과거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건축산업이 건설산업의 일부로 본다고 가정한다면, 이 같은 사실은 인력에 의존해 왔던



▲그림 2. 건설취업자수와 건설수주액 변동추이 (자료: 한국은행)

전통적인 건축 생산방식은 근본에서부터의 변화가 불가피함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건축산업의 현황에 맞도록 건축공학 교육도 체질개선과 산업의 수요에 맞는 커리큘럼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건축공학 교육의 개선과 향후 발전을 위한 방향정립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건축공학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가 지녀야 할 자세 중 한가지는 건축을 산업으로 보는 안목일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설계중심 교육과 기술중심 교육위주에서 탈피하여 설계 및 엔지니어링 교육은 물론이고 건축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 종합적이고 관리차원에서의 접근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건축구조 분야를 예로 들면, 현재까지는 구조공학지식을 전달하는 교육내용이 주된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특정 건축 프로젝트의 거푸집 공사에서 요구되는 동바리 구조를 설계함에 있어서 콘크리트 자중, 축압 등을 반영한 효과적인 동바리 구조 설계 방법론을 다룬다든지, 기존 콘크리트 타설 구조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최대한의 가설장비 용량을 계산하는 내용을 다룬다든지 하는 것이 그 예라고 하겠다. 따라서, 유럽, 미국과 같이 건축설계를 공학교육에서 분리된 디자인 중심으로 분리시켜야 한다면, 건축공학 분야는 기술적인 분야를 건축설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프로세스 관리와 경제적인 접근법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중국, 일본 등과 같이 기술중심에 설계교육이 복합적으로 운영이 되는 식이라면 설계중심의 현재의 건축학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한국의 산업구조는 급속하게 변모하고 있다. 2차산업의 비중이 줄고, 3차산업인 서비스 산업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앞서 제시한 그림 2에서와 같이 건설산업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성장을 이루고는 있으나, 고용의 창출은 정체되어 있다. 따라서, 건축교육의 최종 소비자를 건축산업으로 한정시키기보다는 건축을 비롯한 건설산업과 연관된 다양한 분야로 확대 시킴으로써 건축과 관련된 유관산업 즉, 부동산, 금융, 개발, 사업관리 등의 형태로의 진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존 건축교육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만이 건축분야가 융합분야라는 특징을 살리면서 새로운 미래학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구

축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변화하는 산업과 시대의 흐름에 대한 현명한 대처가 가능할 것이다.

4. ABEEK와 건축공학 교육제도 개선방안

ABEEK 제도가 공학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적정한 교원 수의 확보, 교과과정의 체계적 점검, 교수와 학생과의 관계개선 등이 그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ABEEK가 득보다 실이 많아서 제도를 위한 제도에 불과한 것이라는 의견도 다수다. 이는 ABEEK 제도가 산업체의 수요와 동떨어져 있는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너무 의욕이 앞선 결과로 볼 수 있다. 어떠한 조직도 급작스러운 변화는 부작용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초창기 ABEEK 제도는 공학교육이 국제적 수준으로 거듭나기 위한 진통으로 이해하고 많은 학교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 그러나, 점차로 대학 측에 요구하는 강도만 높아질 뿐, 실질적인 혜택이나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못한 결과, 학생이나 교수로부터 외면받는 처지에 놓인 현상도 벌어지게 되었다. 건축공학 프로그램은 특히 이러한 현상이 거세다. 이는 ABEEK 제도가 교육프로그램이나 제도의 개선을 통해 교육의 정상화 노력보다는 ABEEK 자체적으로 설정한 기준에 너무 얽매인 나머지 평가를 위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평가 후 대응과정에서도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과도하게 요구함으로써 피평가자의 업무부담만 가중시킬 뿐, 실효성 있는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 때문이다. 이에 최근 공학교육인증원 차원에서는 현재 공학공동체(공과대학, 전문학회, 산업계, 인증원, 공학한림원 등)의 구성원들이 TFT를 조직하여 제도 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음의 표 1은 공학교육인증원 TFT에서 검토중인 인증기준의 세부항목별 개선방향이다.

아직 최종결과로 발표된 내용은 아니지만, 인증기준이 전반적으로 완화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이 도출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ABEEK 제도가 실효성 있는 공학교육에 이바지하는 도구로서 이러한 개선의 움직임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임에는 틀림없다. ABEEK 제도가 점차적으로 실효성 있는 기준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가정하에 건축

<표 1> 인증기준의 세부항목별 개선방향

기준	세부기준(항목수)	개선방향
1. 프로그램 교육목표	1.1 구성원의 요구 반영 및 교육기관의 특성에 부합 1.2 정량적 목표 제시 및 공식적 공개 1.3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커리큘럼 및 행정시스템 구축 1.4 교육목표의 달성에 대한 문서화 1.5 교육목표 달성에 대한 주기적 평가	- 항목 수 줄여서 문서 작업 경감
2. 프로그램 학습성과와 평가	1) 수학, 기초과학, 공학지식과 정보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 2) ~12) 학습 성과	- WA의 graduate attributes와 한국적 상황에서의 필요성을 심층 검토하여 적절한 통합과 추가 작업을 진행함 - 인증 업무 특히 서류 처리의 감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필요 예) 학습성과의 개수를 줄임 예) 학습성과를 그룹화하여 그룹별로 성취도 평가
3. 교과영역	3.1 MSC 30 학점 3.2 전공 60학점 (설계 18학점 포함) 3.3 전공교양 18학점	- 전공학점 축소 다양한 이수 형태 및 학점 체계가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 예) 졸업학점 대비 학점비율 규정 재도입 예) 전공 학점 기준 축소 예) 전공+MSC 학점 합계 내에서 대학에 자율권 부여 예) 교양에 대한 제한 해제 - 설계 18학점 규정 삭제 또는 감소 예) 전체적으로 학점 수 감소 예) 분야별 차등 학점 수 도입 예) 기초 설계와 종합 설계만 평가 * 교과목 이수체계 및 이수 순서를 보장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준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과정을 검토하여 판정하는 것이 필요함 * 세부 시행(과학과목 중 1과목은 실험 포함하여 2개 학기 이수, 수학과목에서 미분 방정식 8주 이상 강의 등은 대학별 또는 분야별로 차별성이 많으므로 전체에 적용 하지 않도록 함
4. 학생	4.1 평가(평가/상담/관찰) 4.2 전입생 4.3 졸업기준	-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자율성 확보
5. 교수진	5.1 충분한 교수 수 확보 5.2 교수의 자질 5.3 교수-학생의 유대관계 5.4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 및 반영	- 평가 받는 대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 예) 평가 시에 문제점 지적하고 대학의 개선 약속이 있으면 차기 평가 또는 약속 시기에 개선 여부 확인하는 방법
6. 교육환경	6.1 대학의 지원 6.2 시설 및 장비 6.3 재정 지원 6.4 행정지원 및 교육보조	- 공학교육인증 전담 직원 채용 확대 필요 - 각 단위 프로그램에 1명의 직원이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 - 각 기관에 도움을 주고 학교에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이 보다 해당 기관의 부담으로 되고 있는 상황도 크므로 기술적인 고려가 필요함
7. 교육개선	7.1 교육개선 7.2 발전계획 7.3 자료 관리	- 앞에서 기술한 내용을 반복하여 기술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다른 기준과 통합 또는 항목 수를 줄여서 과도한 문서 작업 경감할 수 있도록 함
8. 전공분야별 인증기준	전공분야별 인증기준 만족	- 전문학회와의 협의를 확대하여 분야간 통일성 및 실효성 확보

공학교육에 대한 방향정립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논의한 건축산업에 대한 이해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공학인증 방향과 접목시켜 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향후 산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축공학인의 양성에 건축공학 교육 프로그램이 일조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건축공학교육을 새롭게 정의하고, 산업적인 수요와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모델을 제안하고, 보급하는데 학계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건축산업의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업적인 수요에 맞는 건축공학 교육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영역이나 미래지향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에 적극적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5. 결론

현재 대학에서 건축공학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다수의 교수진은 기존 건축교육에서 떨어져 나온 건축공학분야만의 정체성 확립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특히, 다수의 건축공학 프로그램이 ABEEK에서 추구하는 방향을 좇고 있는 현상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ABEEK의 인증절차와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그 실효성에 대한 우려 또한 깊다. 그주된 이유 중 첫 번째로는 현재 건축생산프로세스 상 프로젝트(project)나 프로세스(process) 중심의 건축공학 교육이 내세우는 지향점이 프로덕트(product) 중심의 기술인력 양성프로그램인 공학교육인증의 방향성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내의 경우,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외국과는 달리 건축교육이 건축디자인 중심의 설계교육과 기술중심의 공학교육을 동시에 담당해 온 만큼, 이 둘을 독립적인 분야로 떼어서 건축공학교육을 공학교육의 일부로 다루도록 하는 기반이 취약하다. 두 번째로는 기존 건축설계 분야에서 독립된 건축공학 분야만의 독자적인 영역구축이 건축산업에서 요구하는 수요와는 부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ABEEK의 모델인 미국 ABET에서 건축공학(Architectural Engineering)으로 인증을 받은 학교는 18개 학교에 불과하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거의 모든 대학에 건축공학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ABEEK 인증 프로그램은 40개를 넘는다. 이는 국내의 건축공학 프로그램이 갖는 학문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과거로부터 건축공학 교육은 기술중심의 공학인력을 배출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기보다는 건축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 양성에 힘써왔다. 이러한 국내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국내 건축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모델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결국 건축공학 교육을 산업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단지 대학에 몸담고 있는 교수의 몫이라기보다는 학계, 관계, 산업계 등 공동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우수한 학생들은 더욱 우수하게 배출하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최소한의 수준 이상으로 끌어 올리려는 공동의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이 의미하듯, 가까운 미래보다는 먼 미래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안목으로 현재를 바라보는 시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축분야뿐 아니라, 사회 각계 각층 모든 분야가 급격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 진화론의 저자 다윈은 “살아남는 종은 강한종도 지적능력이 뛰어난 종도 아니라, 변화에 적응을 잘하는 종이 살아남는다”라는 주장을 한 바 있다. 건축교육이 변화를 직감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필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산업체, 정부 등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수렴과 주도적인 동참이 필수적이다. 급변하고 있는 현재, 그리고 미래의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사회각계 각층에서 건축교육의 앞날을 고민하고,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겠다. 과거 건축교육이 현재의 경제발전에 혁혁하게 기여하였듯이 현재의 건축공학 교육이 미래의 경제발전에도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